

학생회 선거운동 5일 시작

총학 10년만에 단독 출마... 총여도 단선·총대는 경선

<총학생회>

좋은일만



유병선 (토목공학과 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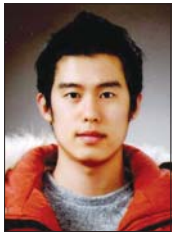
<총대의원회>

길라잡이



양승훈 (경제학과 4·정)

의사소통



강대영 (전자공학과 4·정)

<총여학생회>

청춘걸고



박지혜 (체육학부 3·정)

강대영 (전자공학과 4) 부·변재현 (동물생명공학전공 4)이 경선을 펼친다.

총여학생회는 △‘청춘걸고’ 정·박지혜 (체육학부 3) 부·고수연 (한국화전공 2)가 단독 출마했다.

동아리연합회는 두 팀의 후보가 나섰지만 학생회비 미납 문제가 불거져 31일 후보가 최종확정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총대위원회가 아닌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 주관으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투표일에 함께 선거가 치러진다.

총대의원회 투표는 다음달 13일 한라를 앞에서, 동아리연합회는 15일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각각 실시된다.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20일 각 단과대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투표를 진행한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다음달 7일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총대의원회 8일, 총여학생회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전국 5위’

등록금 대비 교육비·장학금 지급률 등 전국 최고 수준

국제화·평판도는 평균 밑돌아... 2012 중앙일보 평가에서

제주대가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여건 부문 5위를 기록했다. 2010년 4위, 2011년 6위에 이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제주대는 그러나 교수연구 부문 40위, 국제화 부문 83위, 평판도 부문 83위를 기록해 전국 대학평가 종합 순위 40위에 위치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1994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102개 대학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교육여건(90점), 교수연구(100점), 국제화(50점), 평판도(60점)로 3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총 30여개에 이른다. 5위를 받은 교육여건 분야에는 교수당 학생 수, 교수확보율,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세입 중 납입금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등 10개 항목으로 점수를 주고 있다.

교육여건 분야에서 상위권인 이유는 1만명 이하 대학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세입 중 납입금 비율,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5위를 기록했다.

이러 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인 교수당 학생 수, 교수 확보율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수 당 학생 수의 경우 19.4(대학알리미 기준 20.8)명으로 평가 대상 대학 중에 10위에 위치했다. 교수확보율은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여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특히 국제화와 평판도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전체적인 대학 순위 하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

평판도의 경우 평가 지표가 취업률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관적이었다.

2012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순위

순위	대학
1	한국과학기술원
2	포스텍(POSTECH)
3	서울대학교
4	가톨릭대학교
5	제주대학교
6	연세대학교(서울)
6	성균관대학교
6	고려대학교(안양)
6	전북대학교
10	한국해양대학교
10	한림대학교



제주대는 교육여건, 교수연구, 평판도·국제화 순으로 강점을 보였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전공 및 교양교육이 우수대학,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 등이 평가기준이었다.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설문조사나 기업 인사담당자, 고등학교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점수를 매겼기에 공정성이 떨어졌다. 또 평가를 대부분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했기에 높은 점수를 받기 불리한 측면도 있었다.

우리 대학은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인 교수비율,

영어강좌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본부는 앞으로 학생들의 국제 파견 비율을 높이고, 외국인 교환학생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기획평가과) 주무관은 “평판도 같은 주관적인 점수보다는 도서자료 구입비, 중도포기를 하라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휴양형 MICE 사업 산학협력 본격화

“청년들의 취업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대가 휴양형 MICE사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대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은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연동보오메꾸뜨르호텔 3층에서 ‘제주대 LINC사업단 휴양형MICE 산학협력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대 가족화사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산학협력 체계를 뛰어넘는 활로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또 산업체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대

학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하고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산학협력협의회는 제주권역에 호텔, 여행사, 관광지, PCO 등 대표 및 실무 담당자와 사업단 소속 교수와 산학협력 중점교수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MICE 산학협력협의회 위원 및 실무담당자 17명과 사업단 단장, 교수 4명이 참여해 향후 MICE 산학협력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영진(프라이머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업계와 학생간의 눈높이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구축과 캡스톤디자인이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합동으로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

다.

고광민(오라관광㈜ 그랜드호텔) 과장은 현재 제주지역 호텔에서 겪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현장실습 강화의 필요성과 지속성이 있는 신입사원 및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업단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MICE산업 분야의 인력난 해결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단은 향후 제주에서 대형 MICE행사 진행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MICE 산학협력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과 산업체간의 지속적인 가교역할 등 해나갈 계획이다.

전국예비교사대회

교대생 대거 입상

교육대학(학장 최태희)이 지난 12일 경인교육대학에서 열린 ‘제2회 전국교대 예비교사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수업실연 부문에서는 강혜은(초등음악교육 3)·고유라(초등실과교육 4)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인 1등급을 받았다. 또 김유하(초등영어교육 3)씨는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상인 2등급에 입상했다.

수업비평에서는 고상훈(초등국어교육 3)·변순미(초등음악교육 3)·박지혜(초등실과교육 3)·고보라(초등영어교육 3)씨가 경인교육대 총장상인 동상을 받았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 대회에는 전국 10개 교육대학 학생들과 한국교원대 학생 120명이 참가했다.

알립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이 미래 이끈다... 새 기획물 연재

개교 60주년을 맞은 제주대는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물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을 갖춰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의 밑바탕에는 국책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프로그램이 있다. 성과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으면서 제주대는 5년 연속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제주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돼 올해 26억4500만원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 사업(LINC),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기관,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글로벌 무역전문가 육성사업, 융합형다자간대학 육성사업, 생활환경복복지학부 AFPK자격인증 교육기관 및 STS(과학기술과 사회) 사업단 선정, 차세대 바이오그린 연구과제, ‘우장춘 프로젝트’ 선정 등 올 한 해에만 370억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이러한 국책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변화에 맞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특성과 내실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또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취업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졸업 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대신문은 <역량 중심의 교육이 미래 이끈다>는 새 기획시리즈를 통해 국책사업을 통한 우리 대학의 교육역량 프로그램을 △국제화 △취업 △학습역량 △외국어 △링크사업 △창업교육 △정보화 △마치며 <8> 역량 중심의 교육은 이미 시작되었다

▲ 글 쓰는 순서
△국제화 <1> 지역을 넘어 세계로 세계로
△취업 <2> 체계적 취업교육으로 취업명문대학으로 거듭난다
△학습역량 <3> 학습역량 프로그램 여기 다 있다
△링크사업 <4> 산학협력이 경쟁력이다
△외국어 <5> 외국어 학습환경은 우리가 최고
△창업교육 <6> 교육서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정보화 <7> 유비쿼터스 캠퍼스 현실로
△마치며 <8> 역량 중심의 교육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주대신문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불통(不通) 대학 후문, 이대로 괜찮은가

제주대학교 후문은 도로가 협소해 교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2001년 9월에 폐쇄되었다가, 2003년 9월 제주시가 길이 235미터, 폭 12미터의 도로개설포장공사를 완공하면서 다시 개방되었다. 당시 후문개방이 이뤄지면서 학내외 대규모행사 시 교통 분산 효과와 캠퍼스 균형 발전 및 학생기숙사 시설 확충, 서귀포 및 산남지역 통학생 불편해소 등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이 후문이 지금 2003년 9월 이전으로 되돌아 가버렸다. 불법주차 차량들로 말미암아 폭 12미터에 이르는 왕복 2차선 도로가 4미터가 채 못 되는 외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은 후문 인접 도로 좌우로 불법주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는 시간대를 보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불법주차 차량이 집중되는 까닭은 음식점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후문 근처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제대로 된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학교 당국에서 해당 시설 입주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제주시와 협조 하에 불법주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요청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내에 학생 및 교직원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후문 혼잡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내에는 최소한의 식당과 편의시설이 준비돼 있지

만, 공간배치나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서 학내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고, 교수회에서 교내 식당 만족도 조사를 한 적도 있지만, 아직 학교 당국에서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질서의식의 회복이다. 중국 송나라 때의 경행록(景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이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제주대학교 후문을 피하기 어려운 좁은 길로, 그곳을 드나드는 학내구성원들은 물론 방문객들과 원한을 맺게끔 만드는 것은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다.

본래 문(門)은 들고 나는 통로로서 시작과 끝이 되는 이중적 공간이다. 그래서 문의 안팎에 있는 것들이 잘 드나들면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잘 드나들지 못하면 불통의 공간이 된다. 학교당국은 긴 안목과 체계적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더 이상 후문 인접 캠퍼스 내에 건물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은 지성인답게 자신의 편의보다는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질서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제주대학교 후문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통(不通)하는 제주대학교 후문, 이대로 괜찮은가?

생협 활성화와 기획상품 개발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30년 가까이 운영돼온 소비조합을 전환하여 구성원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창출 등을 목적으로 창립된 조직이다.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니 공식 출범한 지 꼭 10개월이 지났으며, 창립총회로부터는 만 1년이 지났다. 점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때맞춰 한 지역 일간지에서는 ‘유명무실 제주대 생활협동조합’이란 제목 아래 두 번에 걸쳐 우리 대학교 생협 문제를 기획 보도했다.

그 기사의 골자는 학생들의 조합원 참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등의 한계로 인해 생협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잉여금을 노후된 건물에 재투자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이 이용금액의 3%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강원대학교 생협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대학교 생협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적절한 지적이다. 대학본부에서는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여 생협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대학 자체의 기획상품 개발이다. 이는 생협의 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대학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여름방학에 우리대학교는 26일 동안 난타 공연을 유치하여 1300만원의 대관료 수입을 올리면서 대학을 홍보하는 기회도 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중국 관광객들은 짬을 내어 아라뮤즈를 맞은편의 학생회관(백두관) 매점에 들러서 쇼핑을 하기도 했는데, 일부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중국 관광객들이 구입해간 물건에 우리대학교만의 상품으로 내세울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교의 교표나 캐릭터가 찍힌 상품이 과연 교내에서 몇 가지나 판매되고 있는가? 개교 60주년의 연륜에 걸맞지 않은,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다.

대학본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학 내에 자체 기획상품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못하는 낯 뜨거운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명품대학’을 외칠 수 있겠는가?

우리대학교는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의 중심 대학이라는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시와 우리대학교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다양한 기획상품을 생산한다면, 그것을 방문자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외부의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어서 수익창출은 물론이요 대학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생협, 기획처, 경영사업단 등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국감서 외국인 유학생 중국 편중 문제 지적돼

현재 82.5% 차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 제기

일본해 표기 책자 배포 문제도 다시 불거져

2012년 제주대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전북대학교 전수당 1층 가인홀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감사 2반(반장 유기흥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는 황우여(새누리당) 의원, 이상민(민주통합당)의원 등이 질의했다.

▲유기흥 의원 “일본해 표기 책자 회수율 65% 불과해 후속조치 미흡”

유기흥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구)이 “제주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나 책자 회수율이 저조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2010년 제주대는 100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재일동포 사업가 김창인 회장이 쓴 ‘김 회장 실천철학心’을 발간·배포한 가운데, 2011년 이 책자에 대해 동해 오기에 대한 민

원을 접수받았으나, 올해 관련 행사가 재배부해 문제가 됐다. 사회적 파장이 일자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책자를 회수·수정 후 다시 배부했다.

그러나, 총 2000권을 발간한 제주대는 배부한 882권 중 310권인 35%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72권인 65%만 회수 후 수정·재배부했으며, 290권은 수정하여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흥 의원은 “제주대가 도민의 민원접수를 받고도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후조치도 미흡하다”며 “역사 인식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 “제주대 외국인 학생 특정 국가 편중 심해”

김상희 의원은 “제주대가 학생선발 선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15일 오후 3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향진 총장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외국인 학생의 82.5%이다. 다른 국가 유학생들이 최대 2%가 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09년 1학기 17개국 278명 중 210명이었는데 비해 올해 2학기에는 82.5%를 차지했다.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 1학기로, 84.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외국인 대학원생 유입 실적을 보면 글로벌 대학인인 중국대학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의원은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4대 발전 방안’ 제시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지방국립대 200만원대 등록금을 실현으로 지방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해결,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지방대 출신 채용 의무화당제’ 통한 취입을 제고 등이다.

김명지 기자

의전원 16.3대 1, 법전원 4.18대 1 경쟁률 기록

의전원 일반학생 전형 22:1

12월에 최종합격자 발표

제주대가 의학전문대학원(나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각각 16.3대 1과 4.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주대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13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나군 입학 원서를 접수한 결과 40명 모집에 650명이 지원해 평균 1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학전문

대학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입학 원서를 접수한 결과 40명 모집에 167명이 지원해 평균 4.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전원의 전형유형별로는 일반학생 전형은 22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특별전형 중 제주지역 학교 출신 성적우수자 전형은 1.8대 1, 복합학위 과정 의과학자(M.D.-Ph.D.) 전형은 7.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주대는 오는 11월 2일 1단계 합

격자를 발표할 후 24일에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전원의 전형유형별로 나군 일반전형은 4.6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가군 일반전형은 4.39대 1, 취약계층 특별전형은 가군이 2대 1, 나군이 0.5대 1을 보였다.

2단계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가군의 경우 11월 10일, 나군은 11월 17일에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3일 발표된다.

김명지 기자

나가사키대 해양실습단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교직원 11명·학생 18명 방문

일본 나가사키대학 해양실습단이 지난 25일 실습선 ‘나가사키 마루호’를 타고 제주대를 방문했다.

해양실습단은 교직원 11명, 학생 18명(대학원생 15명, 학부생 3명)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양 대학 대학원생간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수·해양과학분야의 학문 발전과 상호 교류의 폭을 넓이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공동 심포지엄은 이날 해양과학대학 4호관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나가사키대 해양실습단은 제주대 박물관 관람, 허향진 제주대 총장 예방, 주제주일본총영사관 방문 등 일

정도 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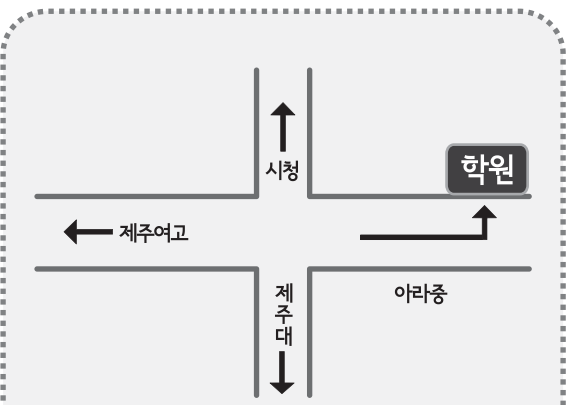
해양실습단은 26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소재한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견학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 Sound Library Open ♡

Open Monday~Friday 9:00am~5:00pm

외국어교육원 (F.L.I) 2층

√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과 시설



√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 1 Speaking 위주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 2 English를 English로 학습하는 콘텐츠
- 3 Level Test(초급,중급,고급)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
- 4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통합 학습
- 5 Self Test 제공으로 성취도 확인 가능한 학습
- 6 음성인식 솔루션을 통한 발음교정 가능한 학습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jeju.ac.kr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개교 제60주년과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3.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할 것.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4.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5.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6.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7.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대학생활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 스펙트럼 만들기”

specification <경력 쌓기>

spectrum <다양한 경험>

인터뷰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 강건우

2012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강건우(정치외교학과 4·사진)씨에게 대한민국 인재상은 단순한 경력이나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강씨에게 대한민국 인재상은 더욱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격려인 셈이다.

“나한테 인재상을 준 이유는 내가 최고이기에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에 대해 몰랐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강씨는 자신을 그저 열심히 생활하려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한다. 그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게 된 것은 군생활을 통해 스스로 마음먹은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다. 처음에 카투사(KATUSA)를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결국 카투사에는 떨어졌지만 그 때 공부했던 영어 실력이 공군에서 병영생활을 하면서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군에서 ‘관제병’ 보직을 맡았다. 군대에서도 공부는 그에게 일과였다. 관제병으로

서 공부하고 암기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독서, 자격증, 토익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인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며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하고 과분한 도움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에게도 주변사람들이 그저 ‘스펙’을 쫓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절대 주저하는 법이 없다. 군 제대를 늦어지 않고 나온 휴가에서 제주대에서 내건 해외인턴십 공고를 보고 도전하게 됐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역 날짜에 해외 인턴십 1차 면접을 봤죠. 강원도 고성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왔는데 늦어서 결국 군복을 입고 면접을 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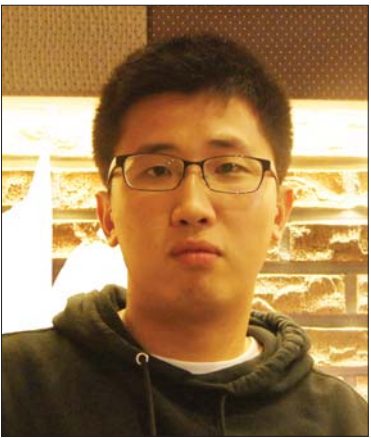
결국 그는 2차에서도 합격을 하고

캐나다 밴쿠버 엠페스티 지부에서 일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미학술회의 활동이었다. 그가 2년이 넘게 활동을 했고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이다. 한미학술회의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활동으로 한국, 미국의 50여명의 대학생들이 양국관계와 국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에서 강씨는 제주대학교 학생 최초로 회의 집행위원까지 맡았다..

그는 앞으로 흥미로운 학문을 정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들어가 일단 공부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한국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인간미 넘치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의 좌우명은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살자’이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치열하게 상대와 맞서면서 살아온 삶의 행적과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인재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역 공동체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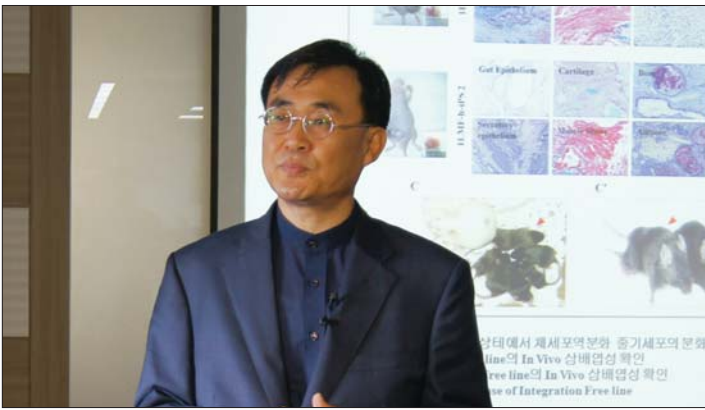
강씨는 누군가에겐 소위 ‘스펙(spec)’이 대단한 사람’처럼 비친다. 하지만 그는 스펙을 쌓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 온 활동들이 그에게 ‘가슴 뛰는 삶’을 선물해주었기 때문이다. 열정 전 대통령이다. 치열하게 상대와 맞서면서 살아온 삶의 행적과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인상 스펙트럼(spectrum)을 수놓고 있다.

김명지 기자

‘역분화 줄기세포’ 개발로 세계선두그룹

박세필 교수팀 논문 발표

“암발생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지난 16일 오전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박세필 교수가 연구주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세필 교수팀이 ‘나노입자와 리포솜’을 이용해 체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 플라스몬에 논문을 게재했다.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만든 이 기술은 ‘역분화 만능줄기세포’ 제조시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 ‘역분화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 거부반응 부작용이 초래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이 ‘나노입자와 리포솜’을 이용한 기술이다.

보통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넣은 뒤 이 바이러스를 성체 세포에 감염시켜 역분화 세포를 만드는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세포로 분화된 뒤 세포 사멸이나 미분화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상용화

에 이르지 못했다.

박 교수팀은 이런 문제가 있는 바이러스 대신에 나노입자를 운반체로 활용해 생쥐에서 iPS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했다. ‘나노입자와 리포솜’을 이용한 실험결과 ‘역분화 만능줄기세포’에 필요한 4개의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신경세포, 심장근육세포, 장, 뼈, 연골 등으로 분화했다.

더불어 역분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8일로 기존 3~5주보다 짧았고, 효율성도 10~30배 향상됐다.

박 교수는 “이번 실험 성공으로 일본과 미국 연구팀을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환자맞춤형치료법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분화는 수정란이 분화해 줄기세포가 되거나, 다 자란 세포에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만능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김동현 기자

평생교육축제 열려... 다양한 전시·체험행사 마련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한라터·아라뮤즈홀에서 열린 평생교육원 축제. 사진은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국악 마당 공연 장면.

제2회 평생교육축제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한라터와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열린 이번 행사에는 평생교육원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1년이 가까이 준비한 내용을 선보였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가운데 허향진 총장의 축사와 이경갑 원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공연은 판소리(남도민요)로 시작해 태극권, 국악, 수필낭송, 한국무용, 피아노 독주, 상송, 오라키나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26일에는 전시관 및 체험관을 한라터에서 운영했다. 수필 창작교실, 커피 시음 보건식의처방, 전통한지공예, 북아트지도, 서각, 스킨스쿠버, 전통 서예, 자전지 평생교육 등의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야외스케치, 드로잉, 제주

녹차 시음, 전통예절과 차, 회화(서양화), 조동창의수학, 생활건강 테이핑 요법 등도 선보였다.

하지만 축제에 관객들이 적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공연을 보러 온 강건식(55·아라동)씨는 “행사 취지나 내용은 좋았지만 관객이 적어 아쉬웠다”며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연을 더 기획하고, 홍보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갑 원장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알리고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축제를 매년 열고 있다”며 “수강생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산학, 민속시장 상인회·특성화사업단과 교류 협약



산학협력단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특성화사업단이 24일 오후 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교육·연구·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단장 이남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회장 홍민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특성화사업단(단장 최정진)이 지난 24일 오후 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교육·연구·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협약을 통해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교환, 활용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상호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특성화사업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제주대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람들

이혜선·고석찬·이선주 교수, 우수논문 수상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한국염색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이혜선 교수(사진 왼쪽), 생물학과 고석찬 교수(사진 가운데), 화학과 이선주 교수(사진 오른쪽) 교수와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오순자 박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주도 자생식물 추출물의 섬유에 대한 염색성의 비교 연구’가 천연염색분야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천연염색상을 수상했다

김문두 교수, 대한우울·조울병 학술상



김문두(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012년도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의 기분장애 분야’의 왕성한 학술 활동으로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생물정신의학분야이다. 특히 노인정신의학, 기분장애에서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왔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으며, 국내외 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우울증 교과서 세부 챕터의 저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

행정대학원 고교관리자과정 총동문회(회장 백용관)은 지난 28일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총동문친선체육대회’ 개최식에서 올해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3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송현경(행정학과 2), 한승제(정치외교학과 2), 김현주(인문홍보학과 1)씨로 모두 3명이다.

백 회장은 지난해에도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문석준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상



문석준(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씨가 지난 25일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육시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포스터 발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논문은 보육정원 50인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성과 외부공간구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관련 건축설계 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 등을 담았다.

연구는 현장 및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민간보육시설의 건축적 특성 도출과 외부환경 구성 요소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시향 명예박사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제주대학교에 13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이시향 명예박사(75·전 재일민단 도교본부단장)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한일친선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 명예박사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출신으로 제주상고를 졸업, 일본에 건너간 뒤 선·로알그룹의 대표로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했다. 현재 ㈜월드상사, ㈜다카라공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지난 2010년 8억원, 올해 5억원 등 13억원을 쾌척,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업무보조학생 시급, 최저임금에 맞춘다

종전 4500원에서 100원 인상
지난 학기 부족 시급도 소급 지급

대학 본부가 지난 학기 업무보조학생들에게 종전 4500원에서 시급 100원을 올려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학생복지과는 2학기 업무보조학생의 시급을 4600원으로 올리는 한편, 지난 학기 업무보조학생들의 시급도 4600원으로 계산해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학기 업무보조학생의 시급은 4500원. 2012년 최저임금 시급인

4580원에 못미쳤다. 이에 학내에서 ‘국립대학에서조차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학생복지과는 이같은 여론에 따라 “이미 지급한 1학기 업무보조장학금의 시급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100원씩 추가해 오늘(31일)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올해대학 등록금이 5.7% 인하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수출상담회에 참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이운완)이 지난 24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다.

이날 도내 업체의 상품소개 및 바이어 상담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와 KOTRA 제주사무소(소장 임인택)가 공동 주관했다.

불링부 창단 첫해 전국대회서 메달 2개 획득 패자



왼쪽 아래 이종인 감독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김동호·강문건·임준태 선수.

지난 3월 창단한 제주대 불링부(지도교수 이세형)가 전국체육대회 첫 출전에서 출전 선수 모두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첫 메달은 강문건(체육학부 1)씨가 신고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대구 나이스불링장에서 열린 남대부 개인전에서 857점을 얻어 동메달을 목에

취업을 Job아라

③ 하반기 채용동향과 대책

업무 적응력 뛰어난 인재 선호… ‘취업전략본부’ 활용해 철저한 준비를

도내 밀감 발에는 밀감들이 노랗게 다 익어 수확하고 있거나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각 기업의 채용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제 어느 정도 각 기업의 2012년 하반기 채용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주요 기업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완료되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취업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희비가 나뉘지고 있다.



이주성
취업전략본부
취업지원관

어느 학생의 얼굴에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과 기대감이, 다른 학생의 얼굴에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에서 함께 뛰어들며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새 고민하며 잠을 못 이루는 학생부터, 취업을 위해 적잖은 비용을 쏟아 부으며 도와까지 취업과외를 받으려 다니는 학생들을 보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자리’ 하나 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힘찬 제도전을 위해서는 신발 끈을 다시 매야 한다. 앞으로 취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나서기 위해 하반기 채용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내년 전망을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은 필수.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임을 명심하자.

하반기까지 취업자 감소폭 확대

그러면 현재 시점에 이르러 2012년 하반기 채용동향의 특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것이 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까?

첫 번째로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기업만 채용이 소폭 증가하고 그 외에는 감소하거나 급감했다. 특히 우리학교 학생 중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 분야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공기업 취업문을 넘어서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틈새시장 공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작년대비 하반기 채용시장이 30.3%가 감소했다고 한다. 이같은 감소폭

확대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고 내년에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영향이 컸다.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을 가장 민감히 받아들이는 외국계 기업의 채용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도 각각 26.6%, 45.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용전형 더 까다로워져 준비 철저해야

두 번째로 채용전형의 다변화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서류전형→실무진 면접→입원 면접→최종합격’의 단계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주요기업에서 이런 전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기업에서는 인적성 검사, PT면접, 토론면접 등이 실시되었고, 금융권에서는 각 기업별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인적성검사, 토론 면접, 논술고사, 기획안작성, 금융경제시험, 합숙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역량면접은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과거의 업무 경험 등을 물어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면접 방식이다. 그래서 사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채시즌에 아무 곳에 입사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취업 첫 관문 ‘인·적성검사’

단적으로 인적성검사에서 떨어지는 학생도 허다하다. 인·적성 검사는 취업 희망자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주요 기업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인·적성 검사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취업포털 에 채용 공고를 낸 기업 중 82%가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는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인성평가와 언어평가, 수리평가, 공간지각력 평가, 상황판단력 평가, 창의력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인적성검사에 떨어지면 “아! 내 성격에 문제가 있

는 걸까? 내가 왜 탈락이야!”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탈락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인성과 적성의 문제보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검사를 풀어가는 전략적 접근 방법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업 ‘인턴십 채용’ 대폭 늘어

세 번째로 인턴십 제도의 확대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선 잔인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인재를 채용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정말 후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충분한 검증을 하기 위해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턴십 기간 중 성실하고 원만하게 생활하여 회사 관계자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그토록 바라던 사원증을 자랑스럽게 부모님 목에 걸어드리길 간절히 바란다.

‘스펙’보다 ‘경험’ 중시 두드러져

네 번째로 화려한 스펙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이 스펙 쌓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 학생의 시각과 기업의 시각이 같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하반기 채용 동향을 살펴본 결과 각 기업에서는 무조건 스펙 쌓기만 한 사람보다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입사 후 업무 적응력과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이다.

인성을 스펙보다 강조하는 기업도 있다. LG이노텍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1차 면접은 인성만으로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강화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이고 확실 있는 어조로 지원동기를 표현해야 한다. 적성과 능력, 직업을 회사의 경영철학과 비전, 인재상과 연결시켜 설득력 있게 풀어놓은 소개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기업의 지난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강과 아르바이트, 직무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모전, 방학 기간 중 인턴십 등을 이용해 사회경험과 자



2012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 연수단 발대식 장면. 현재 호주에서 6개월간 해외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신의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취업준비는 빨름수록 좋아

이번 하반기 공채에 고배를 마신 학생들 중 아직도 멘탈이 붕괴된 상태이거나, 정신을 차리고 현재 올라오는 공채에 지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 공채는 마무리되었지만 대기업 계열사 및 중견기업 공채는 아직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아직 포기하지 말고 채용공고를 잘 확인하여 지원하길 바란다. 서류전형에서 계속 탈락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취업전략본부를 방문하여 꼭 이력서 클리닉을 받길 바란다. 그리고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셀프모의면접기와 취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길 바란다.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 공채도 빠르면 2월말부터 시작한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경제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고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아 각종 지표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질만한 것은 내년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취업전략본부, 문을 두드려라

취업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일을 하며 항상 느끼고 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꼭 취업이 된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취업준비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여 각 기업에 맞는 취업스터디를 구성하여 함께 준비하여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이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취업동아리, 취업스터디를 구성하거나 동참하여 함께 준비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취업전략본부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길 바란다.

감히 우리 학생들에게 바란다. 꼭 한 번은 취업전략 본부를 방문하여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좋겠다. 딱히 물어볼 것이 없으면 방문하여 차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길 바란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항상 사 람이 고프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모든 취업전략본부 직원들이 항상 고민하고 뛰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제대인들이여! 취업전략본부가 여러분들의 취업서포터즈가 되겠노라!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4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면 성공인생 보여요

도전, 눈부신 시작

고 산 /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인공지능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았다. 내 연구분야와는 다소 동떨어졌지만, 우주비행사 선발 광고를 보는 순간,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한 번 해보자’라는 도전의식이 생겼다.

그 후 여러 단계의 힘은 선발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이 거듭될수록 어쩌면 내가 선발될지도 모른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대학시절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북상부도에 참가했고 파미르 고원 무스타카타르의 등반도 했다. 당시 몸담고 있는 연구원이라는 직업도 최후의 2명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면 그냥 무심코 한 일련의 활동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아주 중대한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3만6000명의 경쟁자를 뚫고 예비우주인으로 발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양성할 만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우리 가가린이라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탄생시킨 러시아 가가린센터에서 우주인으로 거듭나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 이곳에서 이론수업, 소우즈 우주선 실습, 체력훈련 등의 몇 가지 고등훈련을 받았다. 이론수업은 당연히 러시아말로 진행됐다. 영어에는 능통했지만 러시아어는 잘 구사하지 못했다. 수업은 통역사와 함께 이뤄졌다.

비록 마지막 우주인으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전화위복이 됐다. 러시아에서 보낸 1년간의 훈련과정이 내 인생을 바꾸놓은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대학시절에는 공부나 열심히 했을 뿐이지 사회 문제나 국가관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로 외국에 나가보니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러시아에서 만난 사람들도 나를 고산이라는 개인으로 인식하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훈련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때마다 나를 견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꿈’이었다. ‘우주에 가면 뭘 해야 하나’ 그 생각 하나로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내 꿈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꿈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별로 와 닿지는 않는다. 우리의 꿈은 마치 이름 모를 씨앗과 같다. 흙에 심고 물을 주고 보듬어야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무조건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뭐라도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살면 100% 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러시아에서 귀국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나는 우선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으로 가서 국민들의 낸 세금으로 훈련도 받았기에 뭔가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주인 배출의 의미가 과학기술의 진보적 측면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넓혀주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우주연구원에서 일하던 중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지난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타이드 인스티튜트(TIDE Institute)라는 비영리 창업센터를 설립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 안에 싱글레리티 대학에서 연수를 하면서 착안한 발상 때문이었다. 싱글레리티 연수는 10주짜리 미션 스쿨이다. 이곳에서 ‘10주 동안 10년 이내 10억명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어디에 틈새시장이 있는지, 어디에서 이윤을 낼 수



“우리의 꿈은 마치 이름 모를 씨앗과 같다. 흙에 심고 물을 주고 보듬어야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있는지를 고민하는데 여기서는 인류를 위한 가치 중심의 아이디어를 중시한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2월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법인을 설립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타이드 아카데미’, ‘타이드 인사이트’, ‘타이드 스타트업 스프링보드’, ‘타이드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많은 분들이 우주인으로 뽑혔는데 우주에 대한 꿈은 접었느냐고 묻는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우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에서 민간 우주선이 개발됐다. 피터 디어맨디라는 미국인이 이끄는 엑스프라이즈 재단에서다. 자신들이 아폴로의 부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2억원의 여행경비를 받는 우주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한국에서도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자존감 중요… 추종자 아닌 선도자 돼라

《Fast Follower》

《First Mover》

청춘! 탐나는 탐라의 미래를 탐하자

김중현 / NXC 사업기획본부장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났다. 이후 다음(Daum) 검색비즈니스 팀장, 대외협력실장, 제주프로젝트 실장을 거쳐 현재 넥슨의 자회사인 NXC 사업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내 나이가 40세 ‘불혹’이다. 혹하지 않는 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꿈을 찾는 것이 나만의 꿈이다. 꿈을 찾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이다.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선택하지 수십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다. 태어나는 순간, 자기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직업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 추종자(Fast Follower)였다. 남이 만든 것들을 가능하면 빨리 모방하고 훔쳐내서 더 좋은 성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을 보면 빠른 추종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닌텐도가 나왔다. 그 때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선 왜 이런 게임을 만들지 못하냐고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 가는 데 채 5년이 되기 전에 닌텐도는 적자기업이 되었다. 후에 우리나라에서 닌텐도가 갖고 있는 창의성과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그동안 추종자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 및 원천 특허 확보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추종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업을 찾는 게 어렵고, 내 꿈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절이 됐다. 시대에 나를 맞추려고 강요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입사한 포털기업 다음(Daum)은 ‘즐거워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모토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기업 NEXON의 심볼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컴퓨터를 통해 넘어간다’는 뜻이 형상화된 것이다. 단순히 게임의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시대가 필요하면 인터넷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것 또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을 제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다. 지난 2003년 다음 이재웅 대표가 사내 게시판에 ‘제주에 이전하면 어떨겠느냐’는 의견을 올렸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 제주 이전 계획의 시작이었다. 당시 검색비즈니스 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제주 출신 팀장은 혼자였다. 제주이전 태스크포스팀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제주이전을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 당시 검색비즈니스 팀장을 계속 맡고 있었다면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이전 태스크포스팀으로 옮긴 이유는 내 고향에 뭔가 가져가보자는 마음의 원천이었다.

제주에 갖고 있는 미래가치는 단순히 아름다운 섬에 그치지 않는다. 강남에는 공원이 두 개가 있다. 도산 공원과 선릉 공원이 다. 다시 말하자면 강남은 무덤 두 곳 빠른 빌딩이 들어찬 곳이다. 그런 곳에서 미래가치가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류는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 극한의 도시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제주올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로 이전한 후 고향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 2008년 4월 처음 오름에 올랐다. 제주에도 숲길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고등 학교 선배들과 제주 동서 종주를 했다. 제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이 중요하다.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동쪽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에서 서쪽의 고산수월봉에 이르는 120km를 2박3일 동안 걸었다. 제주 올레를 걷고, 오름에 오르며, 동서 종주를 하는 동안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의 새로운 가치를 보았다. 우리 회사가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닐모리동동’을 기획했다. 제주의 콘텐츠를 현대화한 공간과 음식을 앞세웠다. 그 수익금은 제주의 문화다양성을 뒷받침하는데 쓰이고 있다.

‘자신만의 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오늘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이 중요하다.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내가 창출할 가치는 내 주변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추어야 한다.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이다.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의 위대함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학생 의견 대학본부에 전달해 학생들 권익 신장에 최선”

〈좋은일만〉 정·유병선(토목공학과 4), 부·홍성훈(영어교육과 3)

다음달 20일 2013학년도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가 치뤄진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총대의원회, 15일에는 동아리연합회 대표를 선발하는 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 2003년 단독 출마한 총학생회 후보가 당선된 이래 정확히 10년 만에 복수 후보가 아닌 단선 후보 찬반투표를 치른다. ‘좋은일만’ 총학생회(정·유병선 토목공학과 4 부·홍성훈 영어교육과 3) 후보자를 지난 29일 본사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출마동기.

“학생들의 권익신장과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출마했다. 학교는 3주제인 학생·직원·교수가 있다. 해양대학 회장을 해보면서 학생들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단과대학 회장이라면 그 단과대학이 진행하는 사업을 알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견이 묻혔다. 총학생회장이 되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했다.”

▶올해 총학생회에 대해 평가하자면.

“‘이공일이’ 총학생회는 상반미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은 잘했다고 본다. 많은 학생 참여를 이끌고 박람회의 질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 아라대동제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었던 축제를 만들었던 것 같다.

다만 사회적 목소리의 학우들에 대한 의견수렴, 공약이행률이 낮은 부분은 아쉬웠다. ‘이공일이’ 총학생회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약을 내걸고 학내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 노력을 알고 있기에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달리 공약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사안은.

“학생들의 권익 신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복지 시스템, 저렴한 등록금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목소리 수렴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총학생회장에 출마하기 전 중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다. 중앙위원회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봤는데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3명, 교수 3명, 학생처장과 전문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기성회 각각 1명씩 10명이 심의를 본다. 이러다보니 2010년에는 학생들이 동결을 말해도 남은 위원들이 인상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하였기 때문에 별 탈 없이 회기가 진행됐지만 학생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학생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줘야 제주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본부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단선으로 출마해 경쟁상대가 없어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대학에서 계속 선거를 지켜봐왔지만 경쟁상대가 없었던 적은 오랜만에라고 들었다. 이러다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단선이다 보니 경선보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허황된 공약을 내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반 학우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 경선 때는 투표 독려 분위기 등을 통해 높은 투표율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단선이다 보니 평년보다 관심이 줄어들고 투표율도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대 학생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 만큼 투표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 선거, 총선거의 경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다. 제주대 총학생회 선거에서의 투표도 일만 아라 학우들의 권리이다. 투표를 해야 총학생회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다. 단선이라 할지라도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첫째로 등록금을 인하시키겠다.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도 많다. 제주대가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엄청 작지만 제주도내의 임금을 고려하면 하루 8시간씩은 일해야 용돈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학업에 치이는 와중에 일까지 치인다면 학교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인하를 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사회적 분위기도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3명의 대권 후보가 방법을 다르지만 모두 등록금을 인하시키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분위기가 등록금 인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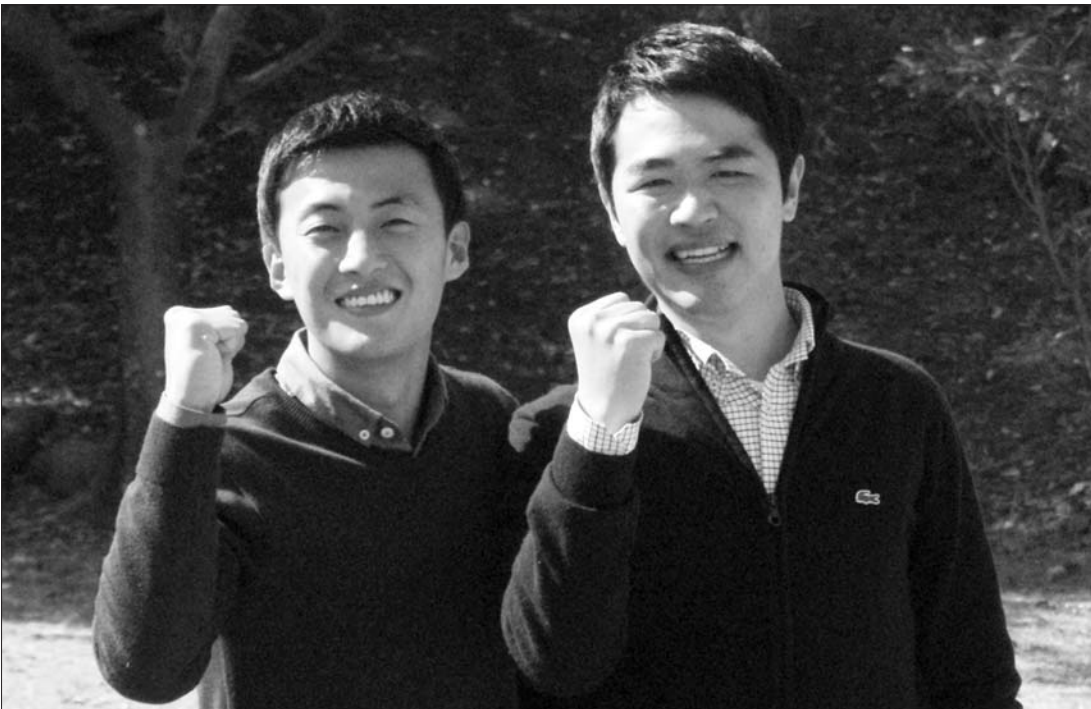
두 번째로 재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겠다. 취업박람회 개최, 실용 위주의 취업 캠프, 해외 인턴십 및 교류 수학생 모집 증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 실용 위주의 취업 캠프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해외 인턴십 및 교류 수학생 증원도 경쟁률이 심해서 가기 힘든 곳의 인원을 늘리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취업 관련 공약은 기존에 있었던 공약이거나 취업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취업전략본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아는 학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을 총학생회 자료집에 넣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내에 있다는 것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제주대의 위상을 올리겠다. 독도를 방문하고 제주대 기념품점을 만들겠다. 기념품점은 옷, 펜, 수첩 등을 판매하고 이 판매수익을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 이 외에도 자료집에 다양한 정책들을 적어 발표할 계획이다.”

▶학내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생활협동조합의 취지에 비해 아직까지 잘 활성화되지 않아 아쉽다. 이와 함께 스타디움 확충, 순환버스 비가림막, 체육관 시설 낙후 등이 문제다.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사항은 정책 자료집에 적었다.”



제45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좋은일만’ 팀. 정후보자 유병선(왼쪽)씨와 부후보자 홍성훈 씨

“학생들 의견수렴과 학내 복지개선에 앞장서겠다”

취업전략본부 프로그램 학생참여 제고 방안 강구

본부-학생 소통방식 민주화 필요… 학생 목소리 높여야

▶대동제에 연예인 공연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또 한편에서는 연예인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동제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대동제 예산을 줄여 학생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대동제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동제를 축제가 아닌 페스티벌로 만들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동제 기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기획거리를 구상하고 있다.”

▶대학 내 약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펼칠 것인가.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단과대, 학과에서 먼저 유학생과 장애인 학우를 배려해야 한다. 이번에 경상대 체육대회나 아라체전에서 유학생 참여 등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유학생, 장애 학우 등 약자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소통과 대화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

▶장애인인권지원센터나 인권위원회 등 총학생회 소속 기구 독립에 대한 견해는.

“장애인인권지원센터나 인권위원회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렇기에 독립시키겠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소통을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

고 노력하겠다.”

▶내년에 총장 선거가 있다. 현 총학생회는 총장에 대한 학생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총장 임용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했었다. 그 때 이경원 교수가 발표한 공모에 의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보고 크게 놀랐다. 학내위원 36명이 모두 교원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도 불만이 많았다.

강원대의 경우 학내의원 37명 중 교원 31명, 직원 4명, 학생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대는 교원만 참여가 가능해 학생의 입지가 너무 좁다. 불합리한 처사라고 밖에 보기 힘들다.

우리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때 학생의 투표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으면 총장 후보자들은 학생에 관한 공약을 걸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 학생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총장 선출권은 무조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학생회는 일만 아라 학우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일만아라의 소통을 통해 학교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와 소통하고 이 의견이 대학본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20일날 열리는 선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총학 단독후보 주요공약

학생복지에 역점

- ▷등록금 인하.
- ▷등록금 예산 및 결산 내용공개.
- ▷투명한 학생회.
- ▷총장 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
- ▷총장과의 대화의 장 마련.
- ▷독도 방문.
- ▷제주대학교 기념품점 설립.
- ▷취업박람회.
- ▷취업캠프.
- ▷기업 초청 강연회.
- ▷도내기업 탐방 기회 확대.
- ▷해외 인턴십 모집인원 확대.
- ▷교류수학생 모집인원 확대.
-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
- ▷수강 신청 초과 과목 수강 인원 확대.
- ▷E-learning 강의 스마트폰 지원.
- ▷4학년 취업자 대상 E-learning.
- ▷성적 세부사항 공개.
- ▷오프라인 수업촬영.
- ▷전자 도서관 신축.
- ▷도서관 버스 확충.
- ▷도서관 CCTV 설치.
- ▷제 2도서관 방음시설 확충.
- ▷전자신문에 제주대신문 추가.
- ▷BTL건립 추진.
- ▷기숙사 냉방시설 확대.
- ▷기숙사 자치위원회 부활.
- ▷기숙사 의무식 개선.
- ▷총학생회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 ▷제주대학교 커뮤니티 ‘제코’ 활성화.
- ▷순환 버스 노선 재정비.
- ▷제주대학교 공식 어플에 버스시간표 추가.
- ▷순환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 ▷체육관 리모델링.
- ▷교내 ATM기1가 추가 설치 및 시간연장.
- ▷산천단 인도 정비.
- ▷스타디움 확충.
- ▷무로프린터 설치.
- ▷가로동 추가 설치.
- ▷휴대폰 급속 충전기.
- ▷생협 홈페이지제작.
- ▷생협 조합원증 발급.
- ▷아라울, 한라울 시험기간 주말개방.
- ▷백두관 식당 메뉴 개선.
- ▷좋은일만 페스티벌.
- ▷ECO 캠퍼스.
- ▷식목일 행사.
- ▷학교 정화 활동.
- ▷4.3사건 영상제 및 유적지 답사.
- ▷제주대학교 문화광장에 4.3강연 추가.
- ▷장애인 인권 대책 위원회 활성화.
-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활성화.
- ▷유학생 학생회 활성화.
- ▷유학생 도우미 시스템 개선.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③고대 중국 토목사에서 보는 과학

자연조건이 만들어낸 역사… ‘만리장성과 15인치 등우선’



정 창 원
사학과 교수

중국의 북방경제지역은 흉노(匈奴), 동호(東胡), 오환(烏桓), 선비(鮮卑), 돌궐(突厥), 계란(契丹), 여진(女眞), 몽고(蒙古)와 만주족(滿洲族)등 북방민족이 장기간 활동하던 지역으로 그들은 중원에 존재했던 제국과 오랜 기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諸)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 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방민족 한국(汗國)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유목경제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위약성과 국부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그들은 농업사회경제의 보충과 구함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대외발전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은 유목민족국가의 필연적인 제적이 되었다. 특히 강대한 세력을 이루었던 흉노와 돌궐제국은 이러한 특색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중화제국의 대(對)이민족정책에 관한 기

존의 서술은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 세계관에 순응하는 이민족에게는 덕화(德化)와 회유(懷柔)를, 저항에 부딪힐 때는 정벌(征伐)과 진압(鎮壓)의 태도를 취해왔다는 중심론적이며 일방적인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막북(漠北)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흉노와 돌궐과 같은 유목민족국가와 중화제국과의 정치관계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한(漢)건국후 제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매김 했던 흉노와 수당시기 2세기에 걸쳐 북방지역의 패자로 군림했던 돌궐제국의 역사 전개과정에서 중국이 전통적 대이민족(對異民族) 정책으로 그들을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오히려 양자 간에 상호 대등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방민족이 중국을 압도하는 힘에 의한 정치관계가 성립·유지되었다. 대표적 거시사가(巨視史家)인 황런위(Ray Huang)가 ‘북방민족의 존재라는 큰 전제가 통일국가 진제국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통일국가로서 북방민족에 대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중원과 북방민족은 단순히 중화적 세계질서모란은 설명하기 힘든 역학관계가 존재했다.

고대 중국 최초의 대통일 제국이었던 진

(秦)과 그 뒤를 이어 등장한 한(漢)제국이 후 성립되었던 당(唐), 명(明), 청(淸)과 같은 역대 중화제국들은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강역의 관념을 고수하였고, 주변과 차별된 중심으로서의 화(華)를 강조하며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화(華)와 이(夷)라는 중심과 주변의 분리로 대변되는 중화주의 역사관속에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중국에서 기술되어진 다양한 역사서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화하(華夏)민족을 그 역사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은 이족(異族)으로 규정지어 비문명적, 야만적, 비도덕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그 화하(華夏)라 규정되어진 중심에서 멀어져 주변으로 갈수록 더욱 이질적인 곳이라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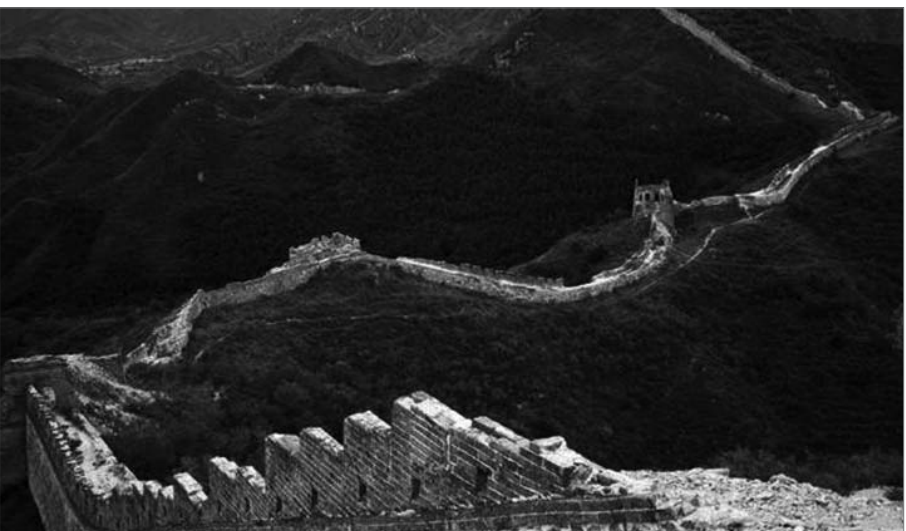
통일이전시기부터 흉노의 존재는 중원의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진시황의 통일제국 완성이후 제국은 그 주변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와 함께 만리장성의 수축과 직도의 건설이라는 대토목사업을 일으킨다. 그러나 기원전 210년 진시황의 사후 찾아온 제국의 혼란을 틈타 흉노는 다시금 제국에 대해 군사적 충격을 가하게 되고, 서한(西漢)제국의 성립초기에도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우세한 지위

를 점하게 된다.

문(文)·경제(景帝)시기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무제가 대대적인 흉노정벌을 감행하고 한편으로 흉노내부의 분열이 시작되기 전까지 서한(西漢)의 통치집단은 대흉노관계에 있어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그 보완적 대응책으로 화친(和親)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상술한 역사적 사실은 비록 중국 사료에서는 완곡히 표현되어지지만, 이러한 점이 당시의 중원과 북방지역의 국제질서가 중국의 전통적 화이질서를 기준으로 삼아 주도한 것이 아닌, 흉노의 힘에 의한 두 개 중심 간의 대등 혹은 중원의 열세적 대외관계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즉 흉노제국이 융성하게 됨에 따라 중원이 취해왔던 전통적 방식의 ‘변방경영’ 방식은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군사적으로도 열등한 지위에 놓여 쪼뼛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는 양대 세력으로 분할되었고, 중국은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다. 서한(西漢)초기의 한/흉노 관계에서 한나라는 사실상 흉노의 조공국이였으며, 이는 곧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허물어진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는 점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발전의 궤적을 만



연평군 15인치 강우량의 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는 만리장성. 이를 경계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충돌과 융합의 역사 발전이 이뤄졌다.

들어낸 것은 바로 토양과 기후조건에 따른 자연환경이었다. 중국 각 지역의 강우량 차이는 매우 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중국의 평균 강우량은 도리어 정형적(定型的) 형태를 보인다. 즉 해안지역에서 습기를 머금은 열풍은 내륙지역으로 갈수록 습기가 증발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게다가 연해에서 비가 내리면 공기속의 습기는 더욱 감소되어 내륙에서는 강우량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15인치 등우선(等雨線)’이다. 이 등우선은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서남지역에 걸쳐 있는데 상당 부분은 바로 만리장성의 궤적과 대체로 부합한다.

Owen Lattimore는 이 선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15인치 이상과 이하의 강우량을 보이는 동남지역과 서북지역에 주목하였다. 이 선의 동남지역이 바로 농업이 번성하고 인구가 밀집한 중원지역이 된다. 그리고 서북지역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토지상의 식물에 의존하여 생존하기에 불가능하여 인간과 식물 사이에 일종이 기계적 작용이 개입하여야 하는 지역이 된다. 이 지역에서 교묘하게 적응해 나간 집단이 바로 유목민족으로 이들은 중국내륙의 농업집단과 2000년이 넘는 투쟁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자연조건이 만들어 낸 경계선은 바로 중국에서 가장 긴 국방선 즉, 만리장성의 노선과 부합하고 있으며,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역사발전의 궤적을 그려낸 것이다.

교수신문

한·중FTA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고성보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농촌을 파괴하면서까지
경제영토를 넓히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

한·중FTA 협상이 지난 5월 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벌써 3차협상이 마무리 되는 등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빠른 진행에 대해서 1차산업이 관광산업에 이어 중요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협상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직접당사자인 1차산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주의 감귤산업은 그 논의의 중심에 서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FTA에 따라 감귤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협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감귤류 생산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82년 100만 톤을 초과한 후, 매 4년마다 생산량이 2배씩 증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최근 10년간 감귤류 생산량은 2000년 878만 톤에서 2010년 2,645만 톤(한국 60만톤의 44배)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중국의 감귤류 재배면적은 2000년 127만 ha에서 2010년 221만 ha(한국 2.1만ha의 105배)로, 10년 동안 1.73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격경쟁력의 기본지표가 될 수 있는 kg당 생산비는 한국은 874원으로 중국 365원의 중국대비 생산비가 2.8배 높고, 중국산 감귤의 품질경쟁력도 평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2001년말 WTO에 가입하면서 감귤을 비롯한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무제자역개발계획을 통해 그 품질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FTA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에의 파급영향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2014년) 후 전체 제주 감귤산업의 생산은 15년간 누적으로 1조 3,603억원가량 감소하며, 15년간인 2028년에는 2011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3,200ha 감소, 생산량은 6만 5,800톤 감소, 자급률이 19.2%p 감소하여 실질조수입은 3,111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산업의 협상대응방안과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협상대응방안은 첫째, 농업부분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 양허대상 제외 또는 초민감품목의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둘째 어쩔수 없이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동식물방역법상의 지역화인정 곤란의 논리개발, 계절관세의 확대 적용, 특별농산물세 이프가드의 도입 등 최악의 봉괴시나리오를 막기위한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대책의 핵심은 우선 선대책 후협상의 자세를 견지하고, 그리고 이 선대책의 핵심은 축소지향적인 대책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토공간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즉, 피해부문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피해보전대책의 핵심인 피해보전직불제는 현재의 수입이 최근 5년간의 수입의 90%이하가 되어야 발동되고 피해액의 9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소득수준의 80%수준이 되게끔하겠다는 생각이 정부의 기본생각인 이상 이에 동의할 농민은 없을 것이고 시장개방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미FTA, 한·중FTA가 위정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영토를 넓혀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잘 수가 있다면 이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자칫 이 과정에서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우리 국토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의 휴양공간인 농촌을 파괴하면서 경제영토를 넓힌다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자문해 본다.

동문칼럼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



김현철
농화학과 84학번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취재본부장

많은 공기를 마시며 티 없이 맑던 하늘 아래서 본관 앞 긴 의자에 누워 혼자 길게 한숨을 쉬고 있던 모습, 늦은 밤 대학정문을 나서며 친구들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 길게 나누었던 대화들… 대학 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80년대 학번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없었던 나로서 멋진 영웅담을 전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학우들의 삶과 동떨어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세상을 좀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심지어 대부분의 학우들이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꾸자꾸 되물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맺힐 것이라든지 일정한 수확을 할 것이라’는 기대 없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줄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어요. 당시에는 참으로 딱한 학생이었죠.

개인의주에 사로잡혀 사회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남은 길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저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언론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즐기는 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들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요. 대학시절 전공이 농화학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도 농업전문 언론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와신상담 끝에 지금의 직장에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면서 전공과 취미를 충분히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삶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지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란 ‘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에 대항하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갑자기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는 할 수 있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므로 해서 훌륭한 영역으로 접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문들처럼 후배들에게 멋진 말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주제 없이 나열만 하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젊은 시절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학시절을 포함해 사람이 살다보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상처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프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꼭 주변 사람들과 용기를 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해요.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되새김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는 후배님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후배님들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돌아쓰방

학내에 인권 전담기구 설치해야



김명지 편집국장

다음달 13일이면 총선거를 통해 학생자치기구 대표자가 선출된다. 이때쯤이면 일부 학생들이 불멘소리로 하는 말이 바로 ‘총여학생회 무용론(無用論)’이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총여학생회가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떻

게 여학생들의 여권신장에 기여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일부 여학생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총여학생회를 성토했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자치기구 선거 때마다 나오는 ‘총여학생회 무용론’에 대해 매년 총여학생회는 해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대의 여성 인권문제는 어떻게

물론 아직도 많은 여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있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대학의 한 교수가 수업 중 성적 농담을 해 수업을

들턴 한 여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해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한 사건도 있었다. 이 일은 지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총여학생회는 이 일에 적극 개입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대상은 여학생뿐만 아니다. 대학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학생, 성적 소수자, 시간강사, 학내 비정규직 청소년노동자 등도 있다.

대학 내 인권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것은 최근 서울대의 대학원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열흘간 서울대 ‘대학신문’이 대학원생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7%의 대학원생이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무보수 연구 지시, 사적 업무 지시, 연구비 및 장학금 유용 또는 유용 지시 등의 내용이다.

제주대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장애 학생은 장애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도 장애로 인한 핸디캡을 인정하지 않

는 교수 때문에 학점을 잘 받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다. 비장애학생보다 학습이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졸업기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고충을 겪은 A씨는 “일부 교수들이 장애학생의 고충을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에게 똑같이 평가받겠다고 차갑게 말한 교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는 학내에 인권센터가 마련돼 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상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 6월 학내에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서울대 인권센터를 신설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신설 인권상담소를 포괄하는 기구다. 그러나 제주대학교는 초라하다. 제주대에는 이 같은 기구가 없어 상담,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힘들다. 일단 학내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총여학생회를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학생자치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은 어렵다. 학내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내 소수자를 대변하는 단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물론, 학내에 이들 소수자를 위한

단체는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제교류본부 산하의 ‘외국인 유학생회’, 장애인 학생을 위한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성적 소수자를 위한 기구는 없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제대로 된 권익보호를 하는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는 아직도 총학생회의 예비비(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서울대처럼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대학본부의 학생처 등 관련부서도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고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간강사, 대학 용역 노동자 등의 인권도 생각해볼자. 소수자의 인권을 굽어 살피는 것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지겹게도 많이 들었다. 앞으로 학생자치기구와 대학 본부가 이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모두 제주대학교를 ‘화합하는 학문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권하고 싶은 책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뉴욕 맨해튼 47번가. 다이아몬드 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2,600개의 보석상이 있으며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절반이 소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의 정식 회원들 간에 독특한 거래방식이 있다. 계약서 한 장 없는 이른바 ‘약수거래’이다. 약수를 하면서 ‘맹구 마잘(Ma-zal), 최고예요’를 반복한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의 독특한 거래방식인 마잘(마잘은 ‘축하합니다’, ‘행운을 빌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을 하고 나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마잘은 종이에 적힌 어떤 거래 계약서보다 믿음직스러운 외상이다. 약수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물건을 내준다. 게다가 언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거래 계약서도 없다. 만약 회원들간의 분쟁이 생기면 클럽에서 개입해 중재를 한다. 혹시라도 신용에 금가는 큰 문제라 생겼을 때는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상을 입힌 책임을 물어 자격증을 박탈한다.

Putnam은 그의 저서 『나홀로 불링(Boaling Alone)』에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된 사례로 뉴욕 다이아몬드 거리의 독특한 거래 방식인 마잘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1916년 Judson Hanifan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으며, Bourdieu가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Bourdieu에 이어 Putnam은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신뢰, 규범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 간의 수평적 단체 내 관계로 보았다. 즉 하나는 자발적 시민참여와 네트워크, 규범이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것들이 중요한 경제·정치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Putnam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공식·비공식적 제도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사회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며 개인, 공동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자본은 불가피하게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의를 가져다주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접근을 차단하고 배제시키며 강력한 결속력과 공동체의 폐쇄성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발하게 되어 구성원들의 성공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



퍼트남 지음
『나홀로 불링』

있다(제주의 펜단문화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의 결속력(solidarity)은 주류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대의 공통적 경험에 의해 더욱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공 이야기는 집단의 응집력을 침식하게 되어 결국 규범의 하향평준화(downward leveling norms)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기능과 더불어 작용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다른 상황에서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적 활용을 확대시키는 한편 부정적인 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사회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신뢰와 참여, 소통과 네트워크 등을 확대하는 한편 배제와 폐쇄성,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과잉요구 등은 최대한 억제시키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경영교육부장, 행정학과 강사

‘사뭇매 독후감 콘테스트’ 수상작 ·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기향
국어교육과 4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엄마를 부탁해』의 첫 페이지에는 원형의 색각 검사 그림과 함께 이러한 리스트의 명언이 쓰여있다. 우리는 어쩌면 맹인

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지 모른다. 작가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작은 색각 검사로 시작하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마의 마음을 들려주고자 한다.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엄마를 찾는 이야기다.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큰 딸부터 시작하여, 큰 아들, 남편이 각각 자신의 시점으로 바라본다. 가족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에 기억이 지나간 후, 새가 되어 나타난 어머니가 ‘나는 이제 가련다’고 말하며 당신의 지나온 생애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엄마를 잃어버린지 일주일째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의 기억 속 어머니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이전에서 멈춰 있다. 어머니의 진짜 생일도,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도 가족들은 다 알고 있진 못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족들은 그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

머니게 무심했나를 깨닫고 죄의식을 고해하듯이 하나 하나 풀어나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작가는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나’ 혹은 ‘당신’ 같은 말로 지칭하는 시점을 사용하여, 소설 속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그 안에서 일어나고 마는 그런 픽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내며,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제작년 겨울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그 진단이 나오자마자 할머니께 당신의 ‘귀한 자식’을 아껴게 했다는 이유로 혼자 은둔했다.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병수발 드는 일을 도맡아 하셨다. 5차 항암치료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어머니는 타지의 병원에서 앉아서 쪽잠을 지새우시면서도 불행 한 마디 없으셨다. 아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악화는 모른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셨다.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1년 동안 떠나 있게 되자, 만발인 내가 자연스럽게 부모님 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려 노력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였는데, 4살 아래 학생인 동생에게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보니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누나’라는 이름의 무게도 이렇게나 벅찬데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 그 사랑과 책임감을 우리 엄마는 어떻게 짊어지고 일생을 살아야했을까. 엄마가 자리를 비우니

많은 공기를 마시며 티 없이 맑던 하늘 아래서 본관 앞 긴 의자에 누워 혼자 길게 한숨을 쉬고 있던 모습, 늦은 밤 대학정문을 나서며 친구들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 길게 나누었던 대화들… 대학 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80년대 학번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없었던 나로서 멋진 영웅담을 전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학우들의 삶과 동떨어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세상을 좀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심지어 대부분의 학우들이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꾸자꾸 되물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맺힐 것이라든지 일정한 수확을 할 것이라’는 기대 없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줄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어요. 당시에는 참으로 딱한 학생이었죠.

개인의주에 사로잡혀 사회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남은 길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저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언론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즐기는 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들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요. 대학시절 전공이 농화학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도 농업전문 언론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와신상담 끝에 지금의 직장에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면서 전공과 취미를 충분히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삶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지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란 ‘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에 대항하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갑자기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는 할 수 있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므로 해서 훌륭한 영역으로 접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문들처럼 후배들에게 멋진 말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주제 없이 나열만 하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젊은 시절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학시절을 포함해 사람이 살다보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상처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프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꼭 주변 사람들과 용기를 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해요.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되새김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는 후배님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후배님들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